

한-중 기술력 차이 3-4년 후 소멸

세계경영연구원, 36%가 3-4년 이내 대등 ... 중국시장 진출 잘한 일

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대체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이 3-4년 이내에 대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세계경영연구원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가 5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, 응답자 가운데 36%(22명)는 <3-4년 이내에 한-중 기업기술력이 대등해진다>고 대답했으며, 26%(15명)는 <5-10년 이내>라고 응답했다.

현재 예상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과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41%(24명)가 <수익성이 악화될 것>이라고 대답했으나 40%(23명)는 <큰 영향은 없을 것>이라고 예상했다.

중국시장 진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의 52%(30명)는 <현지 내수시장 개척>을 꼽았으며 33%(19명)는 <값싼 현지 노동력 때문>이라고 밝혔다.

중국 진출 이후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7%(4명)만이 <적자지속>이라고 답했고 71%(41명)는 <큰 폭의 흑자를 달성했거나 흑자달성 임박>이라고 답했다.

또 92%(53명)는 <향후 중국 투자규모를 확장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>이라고 대답했으며 49%(28명)는 <주변 사람이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면 적극 권유하겠다>는 반응을 나타냈다.

중국에 대한 무역정책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33%(19명)가 <현지 공관의 기업지원 노력>을, 17%(10명)는 <국가차원의 중국진 문가 육성>을 꼽았다.

한편, 응답자 가운데 74%(43명)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북한 개성공단이 당분간 중국 진출의 대안이 되기에 미흡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05/04/06>